

〔書 評〕

鄭光鉉 著

判例로 본三一運動史 (法文社, 1978年)

우리나라 舊代의 社會는 兩班이 國家輿論을 造成하고 代表하였다. 日帝의 侵略의 開始와 더불어 兩班制度는 붕괴하고 一般平民의 勢力이 대두한 것인바 三一運動은 東學運動과 같이 平民運動을 주축으로 하고있는 點에 意義가 깊다. 儒生, 農民할 것 없이 온 國民이 國家와 民族의 運命을 自省하고 결기한 汎國民的인 運動이었던 것이다. 職業의 貴賤 貧富와 男女老少를 不問하고 宗教의 宗派나 敎理에 相關없이, 農山漁村이나 市邑의 구별없이 汎地域的 汎國民的 獨立運動이요 民族의 自存과 自由를 萬邦에 宣布한 民族自決運動으로서 不滅의 價値와 不朽의 意義를 가지는 것이다.

鄭光鉉博士는 異域에서 不自由한 몸에도 不拘하고 己未 60돌을 紀念하여 三一獨立運動史를 著述하였다. 本書는 특히 判例를 통하여 三一運動의 主役들은 물론 지금까지 잊혀져 왔거나 간과해온 人物들의 活動을 모두 수록하여 三一運動의 思想史研究에 귀중한 資料를 제공하고 있다.

三一運動에 관한 資料로서는 日語로 된 「朝鮮騷擾事件狀況」(朝鮮憲兵司令部編), 「朝鮮獨立騷擾史論」(靑柳綱太郎著), 「朝鮮騷擾經過概要」(朝鮮總督府編), 「朝鮮의 獨立思想과 運動」(調查資料) 등은 初期에 屬하는 著作이고, 같은 日文이지만 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2, 3, 姜德相編 「現代史資料·三一運動編」25, 26 등은 解放後의 著作에 屬한다. 國文으로 된 것은 朴股植 「韓國獨立運動之 血史」(上海),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1, 2, 3, 崔南善 「朝鮮獨立運動史」, 李瑄根 「韓國獨立運動史」, 李炳憲 「三一運動史」, 趙芝薰 「韓國民族運動史」(韓國文化史大系 2) 등의 많은 書籍과 關係論文으로 말하면 枚舉에 及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당시의 朝鮮의 最高法院이었던 高等法院의 判決資料로서는 48人 記錄外에는 國史編委의 韓國獨立運動史 第2卷에 開城萬歲示威運動事件과 南原萬歲示威事件만이 收錄되어 있을 뿐이었다. 裁判記錄面에서 三一運動關係事件

의 資料는 모두 湮滅되다시피 하고있던 차에 著者 鄭博士는 東亞日報社가 己未 五十周年을 맞이하여 펴낸 「三一運動 50週年紀念集」에 「三一運動關係 被檢者에 대한 適用法令」을 寄稿하여 法學的 側面에서 一部 考察한 바 있었거니와 이번에는 그 당시의 法令의 解釋과 上告事件에 關하여 詳細한 評價를 전개하고 있다.

그것은 獨立運動事件 가운데 上告가 제기되고 그 事件이 確定된 上告審判을 알기 위하여서는 高等法院判決과 破棄還送으로 인한 覆審法院에서의 判決까지 모두 考察할 必要가 있다.

鄭博士의 本書는 孫秉熙 선생을 비롯하여 모두 375명의 재판을 통해 檢事의 公訴要旨와 法院의 判決趣旨 그리고 辯護士의 辯論要旨(上告理由)를 原文 그대로 소상히 수록하고 있다.

특히 美國人 宣敎師 마우리氏(한국명 牟義理)가 三一運動에 參加한 5名의 學生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다는 혐의로 起訴된 牟義理씨 事件의 개요와 上告理由 判決文 등은 讀者들에게 興味 以上の 感銘을 준다. 「判例를 통해서 본」의 副題가 붙은 本著書는 裁判過程에서 드러난 三一獨立運動志士들의 義氣와 思想, 또 그 先烈들의 心山고초가 克明하게 떠올라 어느 運動史보다도 깊은 意味를 안겨준다. [田 鳳德 評]